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본부, 관세청	
담당	국무조정실 농림정책과	과장 김신재, 사무관 김동현 (044-200-2231, 2232)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과장 정병곤, 서기관 김종원 (044-201-2071, 2074)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과장 고경봉, 사무관 김상욱 (054-912-0601, 0612)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	과장 김영태, 사무관 조규황 (054-912-0653, 0667)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장 정준용, 사무관 조은희 (063-238-1040, 104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 이준희, 사무관 이나영 (044-201-7245, 7242)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과장 류종영, 사무관 신영락 (044-200-5770, 5771)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과	과장 전상률, 사무관 이훈구 (044-205-5250, 525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과장 김유인, 사무관 김민선 (044-201-4016, 4018)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과장 박옥, 역학조사관 김세원 (043-719-7550, 7554)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과장 김종덕, 서기관 이효진 (042-481-7820, 7904)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에 범부처 총력 대응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 △34개 항만 개미베이트 살포 △집중관리대상 10개 항만 지정 및 예찰 전담인력 확대 △민간전문가 증원(4명→8명) 등 추진계획 마련

□ 정부는 평택항, 부산항에 이어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월 10일(화) 17시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을 위한 범부처 방역대책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행안부·국토부·농진청·관세청 담당 실·국장, 전문가 2명

□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긴급 방역조치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① 인천항 방역조치

- 인천항에 붉은불개미 유인용 예찰트랩* 766개와 간이트랩** 30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포획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유인용 예찰트랩 11개→777개로 확대, 간이 트랩은 당일 설치 후 수거
- 발견지점 주변 200m×200m 내의 컨테이너를 이동제한하고 외부 정밀조사와 소독을 실시한 후 반출하는 한편, 부두 전체 바닥면에 소독약제를 살포하여 유입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② 검역 강화

- 식물검역 강화차원에서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 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 검사하고 있습니다.
- 중국 등 불개미 분포지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미소독시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비식물검역 강화를 위해 부산항 등 10개 항만 및 의왕·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중국·동남아 국가 등 고위험지역 반입 컨테이너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③ 예찰강화·주기단축

-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40개 공항만 및 2개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6.24~6.29)했고, 발견지 이외의 항만에 대해 예찰주기를 단축(월1회 → 2주 1회) 실시 중입니다.

- 평택항·부산항·인천항 인근 지역 및 배후지의 조사범위를 확대(2km → 5km)하고, 조사주기도 단축(월 1회 상시예찰 → 발견일 부터 1주일간 매일 조사)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④ 유입경로 파악

- 이번에 검출된 붉은불개미의 유전자분석 등을 통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유입원인, 시기, 발견지 지점간의 연계성 등을 규명 추진 중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개미베이트 주기적 살포

- 전국 34개 항만 지역 야적장 바닥 틈새, 잡초 서식지 등 불개미 서식이 가능한 지역에 연쇄살충 효과가 있는 개미베이트를 살포하여 불개미 서식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매년 불개미 활동기(5월·7월·9월)에 연3회 살포(금년은 7월·9월 살포)

- 개미베이트 살포는 예찰조사의 빈틈을 보완하면서 소독·방제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절감 및 국경 정착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집중관리대상 항만 지정, 예찰 및 방역 강화

- 불개미 분포지역 화물이 주로 수입되는 10개 항만*을 집중 관리대상 항만으로 지정, 예찰 전담인력을 확대(122명 기배치 운영중) 하는 등 발견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찰과 방역을 강화 하겠습니다.

* 광양항, 울산항, 군산항, 포항 영일항, 경인항, 부산 감천항, 서산 대산항 (기존 발견지인 평택항, 인천항, 부산항 포함)

- 나머지 항만과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적치 장소와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여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찰트랩 및 육안조사 강화(월1회 → 2주 1회), △ 공항만 주변 검역지정 장소 489개소 점검(7.2~7.31), △국경지역 정부합동예찰 지속(월1회)

③ 붉은불개미 자문 민간전문가 확대 (4명→8명)

- 현장 합동조사, 불개미 분류동정, 유입경로 역학조사, 홍보 등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4명 → 8명)하겠습니다.

④ 신고 전화 안내 등 홍보 강화

- 항만, 물류창고 종사자들이 의심 개체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포털과 관계기관 SNS 등을 활용, 신고 전화 번호를 안내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 컨테이너Tag(20만개) · 포스터(1,810) · 리플릿(19,500) · 현수막(55) · 부채(22,000) · 메모지(17,000)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 정부는 붉은불개미 유입 확산 차단을 위해 예찰조사, 일제소독, 컨테이너 점검 강화 등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 인천항에서 새로이 불개미 군체가 발견된 만큼 국경에서의 차단 방역을 심각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지난 6.22 회의에서 결정된 방역대책과 오늘 추가로 결정한 보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붙임)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

발견일자	발견장소	발견 개체수	유입경로
'17.9.28.	부산항 감만부두 (야적장 시멘트 틈새)	1,000여 마리 (1개 군체)	역학조사 중
'18.2.19.	인천항 보세창고 (수입 고무나무묘목, 창고내)	1마리 (일개미)	중국 복건성
'18.5.30.	부산항 허치슨부두 (수입 대나무, 컨테이너 내부)	2마리 (일개미)	중국 복건성
'18.6.18.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야적장 시멘트 틈새)	700여 마리 (1개 군체)	역학조사 중
'18.6.20.	부산항 허치슨부두 (야적장 시멘트 틈새)	3,000여 마리 (1개 군체)	역학조사 중
'18.7.6.	인천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부두 (야적장 시멘트 틈새)	770여 마리 (1개 군체)	역학조사 중